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청각·시각장애인 맞춤형 ‘보행 가이드라인’ 발표	워싱턴 D.C.
사회·복지	3	생활근공자 자립지원 시범사업 모든 자치구로 확대	오사카
환경·안전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녹색마을 만들기사업’ 지원	요코하마
	8	전담팀 가동해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대대적 단속	로스앤젤레스
	10	‘식품사막’ 줄이는 지역 정원 만들기 지원사업 실시	댈러스
도시교통	11	픽토그램 활용해 자전거 안전주행 유도	교토
	14	‘자전거 통행 보호’ 새 교차로 디자인 첫선	솔트레이크시티
	16	‘더 빠르고 편리하고 쉽게’ 보행 전략보고서 발표	시드니
도시계획·주택	20	문화재 건평 양도제 공공소유 문화재로 확대 시행	시드니
	22	내집 갖기 · 가족유대 강화에 도움주는 공공주택 정책 마련	싱가포르

청각·시각장애인 맞춤형 ‘보행 가이드라인’ 발표

눈부심 조절, 횡단보도 설계, 표지판 구성 등 다양한 지침 포함

미국 워싱턴 D.C. / 도시교통

- 워싱턴 D.C.의 갈로뎃 대학교(Gallaudet University) 청각장애연구소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시환경 구성안인 ‘청각장애인 공간 지침(Deaf Space Guideline)’을 발표하였음. 이 가이드라인에는 도시 명암, 눈부심 조절, 보행로 및 횡단보도 설계, 표지판 구성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전세계 2억 8,500만 명이 시력에 문제...미국 청소년·성인의 13%는 청력에 이상

- 전 세계 인구 중 약 2억 8,500만 명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약 1/8의 청소년과 어른은 청력에 문제가 있음. 이러한 사람들이 도로를 건널 때 많은 위험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혼잡한 횡단보도를 쉽게 건널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있는 보행자가 도로를 쉽게 횡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음.



시각장애인 자동반응시설(Response Street Furniture)



음성안내 자동반응시설도 개발... 이용자에 맞춤형 거리시설 제공

- 최근 영국 런던 디자인 박물관에서 열린 ‘올해의 디자인(Designs of the Year)’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도로 횡단시설이 전시되었음. 이 시설은 로스 앳킨(Ross Atkin)과 존 스코트(Jon Scott)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이용자의 장애 유무 혹은 선호도에 따라 자동으로 가로등이나 음성 안내 등이 작동하게 됨.
 - 인터넷으로 본인의 잠재적인 위치·이동 범위·음성 안내 필요 여부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미리 입력해 두면, 이후 칩을 소지한 이용자가 ‘자동반응 시설(Responsive Street Furniture)’을 지날 때 시설이 자동으로 반응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식임.

<http://www.citylab.com/navigator/2015/05/responsive-furniture-prototype/392294/>

<http://www.rossatkin.com/wp/?portfolio=responsive-street-furniture>

사회·복지

생활곤궁자 자립지원 시범사업 모든 자치구로 확대

일본 오사카市 / 사회·복지

- 오사카市는 2013년도부터 3개 자치구에서 시행한 '생활곤궁자 자립지원 제도' 시범 사업을 2015년 4월부터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여 시행함. 이 제도는 생활곤궁자를 조기에 파악하여 상담 창구와 연결하고, 지역 네트워크·관계 기관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상담·취업 지원 두 방법으로 진행...주거보장지원금, 임시숙박장소 등 제공

- 이 사업은 상담 지원과 취업 지원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됨.
 - 상담 지원 : 각 구청에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담당관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처한 생활곤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나 정책을 소개해 주거나 지역 네트워크·관계 기관 등과 연계시켜주는 상담 지원을 시행함.
 - 취업 지원 : 상담 창구에서 취업이 가능한 피상담자에게 업무능력 향상 교육과 구직 활동 등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함. 취업·정착에 필요한 지원도 시행함.
-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주거보장 지원금 지급, 임시 생활 지원사업, 학습 지원사업, 취업훈련 추진사업 등이 있음.
 - 주거보장 지원금 지급 : 퇴직·이직 등으로 거주 공간을 상실하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생활곤궁자 중 65세 미만에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함.
 - 임시 생활 지원사업 : 일정한 주거공간이 없는 생활곤궁자에게 임시 숙박장소·의류·식사 등을 제공함.

- 학습 지원사업 : 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담당관을 파견하여,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통해 진학 의식을 높이고 자립 동기를 부여함.
- 취업훈련 추진사업 : 단기간에 일반 취업이 어려운 생활곤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훈련을 시행하고, 프로그램에 더 많은 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홍보를 시행함.

<http://www.city.osaka.lg.jp/main/news/curr.html>

<http://www.city.osaka.lg.jp/fukushi/page/0000268059.html>

환경·안전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녹색마을 만들기사업’ 지원

일본 요코하마市 / 환경·안전

- 요코하마市는 2014년도부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택단지, 상가, 업무지구, 공장지대 등 다양한 도시 지역에 어울리는 녹지 공간을 창출하는 ‘녹색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 사업은 지역단체의 제안을 모집하여 일정 심사에 통과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임.



‘녹색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의 주요 형태

주택단지, 상가, 공장지대 등 다양한 도시지역에 어울리는 녹지공간 확보 목적

- 2015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지역주민의 제안을 모집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함.
 - 녹화와 관련된 정비나 활동이어야 하고, 일반시민도 즐길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추어야 하며, 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진행해야 함. 또한 녹화 정비사업의 위치가 명확하고, 정비 이후에도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함.

지원 금액 : 총 연간 500만 엔(약 4,500만 원), 3년 상한

내용	조성률
1. 사유지의 녹화 비용	- 설계 등 경비 100% - 정비비 90%
2. 경관 나무의 보전 비용	- 경비 100% - 상한 있음
3. 지역의 녹화 활동비	- 경비 100% - 상한 연간 100만 엔(약 900만 원)

- 2014년에 선정된 사업은 다음과 같음.

2014년 요코하마 ‘녹색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내용

사업지구	사업명	계획 내용
요코다이 1정목 지구	회관부지 내 등의 녹화 사업	- 마을회관 테라스·계단·사유지(슬로프 지역)를 녹화하고 주민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 - 테라스에는 잔디를 깔고 울타리에는 벽면 녹화를 시행 - 녹화를 시행하여 지역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목표 - 고령 등으로 직접 정원 손질을 할 수 없는 자는 지원 활동으로 활동가의 모집·육성을 담당 -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초등학교 지역에 녹화를 시행
무츠카와, 나가타 지구	미나미 중학교 주변의 녹화 추진 사업	- 미나미 중학교 주변에 자라고 있는 ‘수국(약 50종류 500주)’을 지역 녹화의 축으로 조성 - 수국 이외에도 다양한 화초로 학교 주변 연도에 녹화를 진행 - 미나미 중학교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환경 미화의 의식을 높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강습회를 개최하고 홍보지를 발행 - 사유지의 녹화 지원 - 협력자와 협찬 기업을 모집하여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카키노키다이 지구	땅 만들기, 사람 만들기, 마을 만들기	- ‘흙’을 중심으로 모든 연령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 만들기를 목표로 함. - ‘걷고 싶고, 걸어서 즐거운 거리’를 목표로 녹화 조성 - 퇴비를 스스로 만듦(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가로수 낙엽을 이용). - 오리지널 꽃 상자와 벤치 제작 - 산책로 책정 - 녹화 공쿠르 시행
타케야마 3정목 지구	타케야마 연못을 중심으로 한 경관·생물 다양성의 재생	- 과거에 마을 생활의 중심이자 휴식의 장이었던 타케야마 연못 주변을 재생하는 사업을 진행 - 수초를 심어 푸른 경관을 조성하고, 동시에 수질 정화도 하고자 함. - 대나무 숲, 잡목 숲, 초지 등을 적절하게 관리 - 연못 환경 보전 활동의 일환으로 생물 조사 및 수질 조사 시행 - 연못 동쪽의 상가에는 계절의 꽃들이 있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화단 조성

사업지구	사업명	계획 내용
나카하라 3정목 지구	벚꽃과 수국, 꽃이 피는 언덕의 정원 만들기	- 계획 지역은 통학로에 접한 녹지이며, 저녁에는 아이들과 통근자가 많이 보행하는 장소로 수국 등 관목류와 화초를 심어 지역의 정원으로 조성 - 주로 원예를 취미로 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점차 다양한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지역 내 녹색마을 조성 분위기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 목표



나카하라 지구 녹색 조성 사업 계획

<http://www.city.yokohama.lg.jp/kankyo/midoriup/jigyo/midori/chiikimidori2>

<http://www.city.yokohama.lg.jp/kankyo/midoriup/jigyo/midori/chiikimidori2/20150216101319.html>

<http://www.city.yokohama.lg.jp/kankyo/midoriup/jigyo/midori/chiikimidori2/images/nakahara3/nakahara3.keikaku.pdf>

전담팀 가동해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대대적 단속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 환경·안전

- 로스앤젤레스市는 시내 도로에 무단투기로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하고, 블록별 청결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는 ‘클린 스트리트 이니셔티브(Clean Streets Initiative)’ 프로젝트에 착수함.
- 시는 시내 도로에 무단투기로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프로젝트에 착수함.
 - 로스앤젤레스시장은 도로·인도·골목 등 공공장소의 청결은 삶의 질·경제·건강에 필수적이며, 이번 프로젝트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힘.

블록별 청결도 평가시스템 구축…시 전역에 쓰레기통 5,000개 추가 설치

- 현재 1,000여 개의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지만, 앞으로 4년 동안 시 전역에 5,000여 개의 쓰레기통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함.
 - 로스앤젤레스시는 현재까지 거리·골목 등에서 3,000톤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해 왔으나, 방치된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추가로 설치되는 휴지통은 개당 매년 2톤가량의 쓰레기를 거리에서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는 ‘클린 스트리트 전담팀(Clean Street Strike Team)’을 가동하여 불법 쓰레기 투기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도로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할 예정임.
 - ‘클린 스트리트 전담팀’의 단속으로 매달 500톤의 쓰레기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와 더불어 부피가 큰 대형 물품을 수거해 주는 ‘311 서비스 라인’을 무료로 제공하여 대형 쓰레기의 무단 투기를 막고자 함.
 - 도시환경위원회·사회단체·기업·주민 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클린 스트리트 협력단(Clean Streets Corps)’을 만들어 프로젝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시는 예산 부족으로 쓰레기 수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올해 500만 달러(약 5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내년에는 410만 달러(약 45억 원)를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한편, 시는 프로젝트 발표 당일 하루 동안 시 전역의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던 소파·매트리스·식탁 등 쓰레기 13톤을 수거함.

http://www.lamayor.org/mayor_garcetti_signs_executive_order_to_launch_clean_streets_initiative

<http://www.latimes.com/local/lanow/la-me-ln-garcetti-trash-20150423-story.html>

‘식품사막’ 줄이는 지역 정원 만들기 지원사업 실시

미국 델러스市 / 환경·안전

- 델러스市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가꾸기 위해 ‘지역 정원 만들기 (Community Garden)’ 지원사업을 시행함. 이 사업으로 영양분이 함유된 음식을 제공하여 ‘식품사막(food dessert, 도심 등에서 식료품을 구할 수 없는 지역)’ 현상을 줄이고, 지역주민에게 활력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증진하고자 함.
- ‘지역 정원 만들기’는 정원을 가꾸는 개인·단체가 기부나 소비 등을 목표로 식량을 경작하고 재배하거나 조경으로 경관을 관리하는 방식임. 시는 지원서 작성 지침에 수요, 관련 기술, 참여 계획, 예산 등의 내용을 제시함.

지역주민 삶의 질 높이고 건강한 지역사회 가꾸기 ‘일석이조 효과 기대’

- 지역의 수요 : 시는 이 사업으로 녹지·농·식물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따라서 사업계획의 목적, 지역의 수요, 지역사회의 역사, 이 사업을 통해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야 함.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장애요인들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사업·프로그램 관련 기술 : 지원하려는 개인·단체는 이 사업의 수혜자는 누구인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절차나 단계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함.
- 지역 참여 계획 : 시는 이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지역 내 다른 주민과 조직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자원, 보조금 지급 만료 이후 사업을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 것인지 등을 설명해야 함.
- 예산·자원동원 계획 : 예산 내용에 어떤 자원이 어느 정도 투입될 것이며, 전문기술·지식 등을 어떻게 기부 받을 것인지 등을 포함해야 함. 또한 지역사회 의 참여와 봉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도 설명해야 함.

<http://dallascitynewsroom.com/pdf/Community-Garden-Fund-Guidelines.pdf>

도시교통

픽토그램 활용해 자전거 안전주행 유도

일본 교토市 / 도시교통

- 교토市는 2000년 ‘교토시 자전거 종합계획’을 책정하고 2010년에는 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리고 4년이 지난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 및 중간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15년 3월 ‘교토시 자전거 종합 계획’을 개정하여 발표함.
- 이 계획의 기본 방침은 시가지 지역의 간선 도로를 활용한 네트워크화 추진,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면적정비 추진, 자전거 사고발생 해소 등 대책이 필요한 장소의 정비 추진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시책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자전거 종합계획 수정...안전교육 강화하고 자전거 주차장도 정비



교토시 자전거 종합계획의 방향

-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 차도의 좌측에 자전거 주행도로를 명확하게 표시해 놓는 ‘자전거 주행 권장 영역’을 정비하고, 픽토그램으로 자전거의 진행 방향을 표시해 자동차의 통행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의 주행을 유도
- 자전거 안전 이용 교육 : 학교 자전거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부터 노년층 까지 자전거 안전 이용에 관해 알고 배울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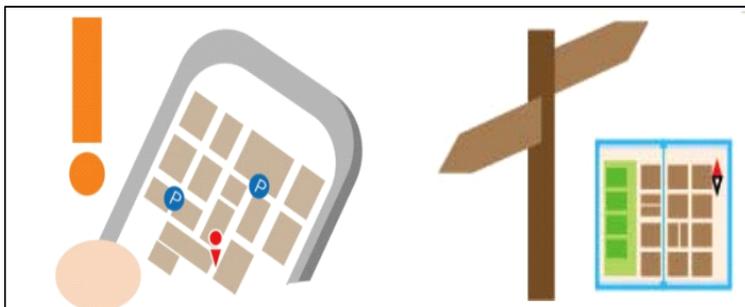


교토시의 자전거 주행환경 정비 모습

자전거 안전 이용 교육의 주요 사업내용

사업 목표	주요 내용
자전거 주행의 룰과 매너 계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 ·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 안전 교육 시행 - 경찰 등과 협력하여 초등학생 안전 교육 시행 - 초등학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TS 마크 보급 - 대학생 · 청년을 대상으로 정보지 등을 통한 자전거 매너 홍보 - 대학생 입학식에서 교토 자전거 팸플릿 등을 배포 - 자동차 교습소 등을 활용한 지역 자전거 강습 시행
좌측통행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버스의 후면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좌측통행 홍보 - 교토시와 교토 경찰서의 공동 주최로 자동차 매너향상 축제 등을 마련해 좌측통행 홍보
새로운 자전거 이용 교육 프로그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이외의 자전거 교통안전 교실 개최 - 자전거 안전 교실에 참여한 강습자에게 자전거 주차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 자전거 주차장 환경 정비 : 역이나 변화가 등 각 장소의 특성에 따른 주차장 정비와 '민간 주차장 유치 지원 제도' 등을 바탕으로 한 주차장 정비를 유도함.



자전거 주차장 위치 정보



자전거 주차장 정비 사례

- 자전거 관광 정비 : 관광용 자전거 대여업자의 등록제 도입과 자전거 관광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대여 자전거 등록번호 제도의 도입, 이용자 대상 자전거 이용 룰과 매너의 홍보 등을 시행함. 또한 외국인도 쉽게 알 수 있는 자전거 주행환경 가이드라인 책자를 배포함.

<http://www.city.kyoto.lg.jp/kensetu/page/0000179704.html>

<http://www.city.kyoto.lg.jp/kensetu/cmsfiles/contents/0000179/179704/keikaku.pdf>

‘자전거 통행 보호’ 새 교차로 디자인 첫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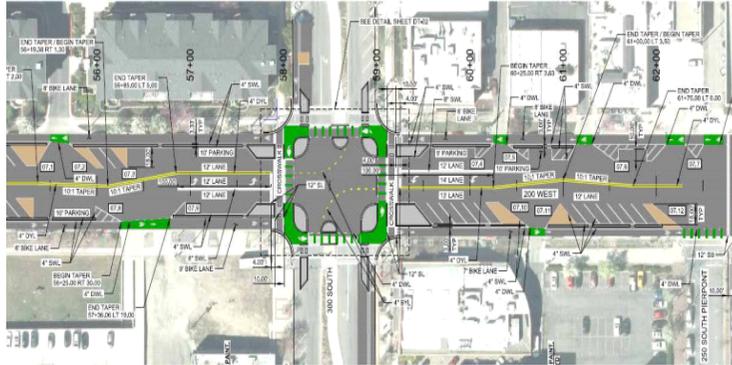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 도시교통

- 솔트레이크시티는 자전거 통행을 보호하기 위한 교차로를 선보일 계획임. 교차로 디자인은 보행자와 자전거, 차량의 잠재적인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덜란드식 거리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됨.
- 기존에 자전거 이용자는 일반 차량과 함께 도로의 좌회전 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는 것이었으나, 새로운 교차로 디자인은 사거리 코너에 보호공간을 설치하여 두 번에 걸쳐 횡단보도 옆 자전거 도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도록 설계됨.
 - 새로운 교차로 디자인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은 좌회전하며 길을 건널 때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음.



자전거 이용자 좌회전 시 시야 확보 가능...을 10월께 나올 예정

- 새로운 교차로 디자인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시켜, 더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보호공간은 차량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벽화가 그려진 기둥이 설치되어 안전과 도로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교차로 설계도 예시

- 이 교차로는 새로운 솔트레이크시티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올해 8월 중으로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며, 공사 완료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는 다운타운 교통 마스터 플랜의 일부분으로, 200 웨스트대로를 따라 900 사우스부터 노스 템플까지 시행될 예정임.
- 시는 현재 200 웨스트대로는 계획된 차량 수용량의 90%가량이 활용되지 않아,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밝힘.

<http://usa.streetsblog.org/2015/05/06/salt-lake-city-to-install-nations-first-protected-intersection-for-bicycling/>

<http://www.planetizen.com/node/76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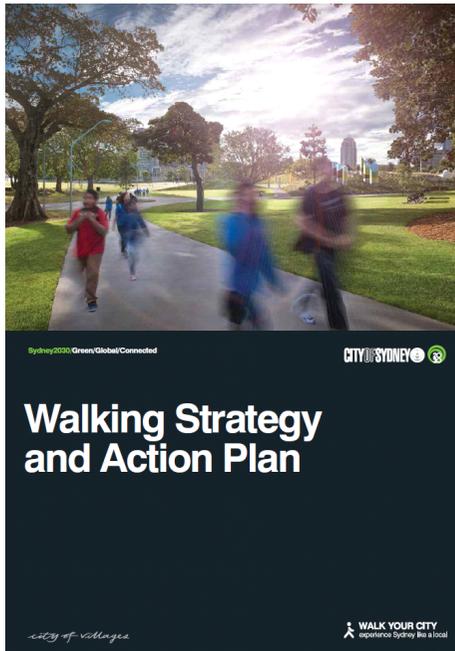
<http://www.ksl.com/?nid=148&sid=34518510>

‘더 빠르고 편리하고 쉽게’ 보행 전략보고서 발표

호주 시드니市 / 도시교통

- 시드니市는 ‘보행 전략과 실행 계획(Strategic and Action Plan 2015-2030)’을 발표함. 이 보고서는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보행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집대성하여, 보행을 더욱 접근이 용이하고 매력적이며 안전한 여행 수단으로 만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함. 시는 이 전략보고서를 위해 지난 2014년 말부터 초안 보고서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관련 정부기관·유관단체·지역주민·사업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광범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쳤음.
- 시가 도시설계 전문기관에 의뢰한 보행 관련 연구(The Public Spaces Public Life Study) 결과, 교통 체증 문제·도로설계 과정에서 보행자에 대한 낮은 우선순위·높은 도심 주행 속도 제한·매력적이지 않은 보도 경관(streetscapes)·보행 안전 미흡·혼잡한 보도 등이 도심 보행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물로 지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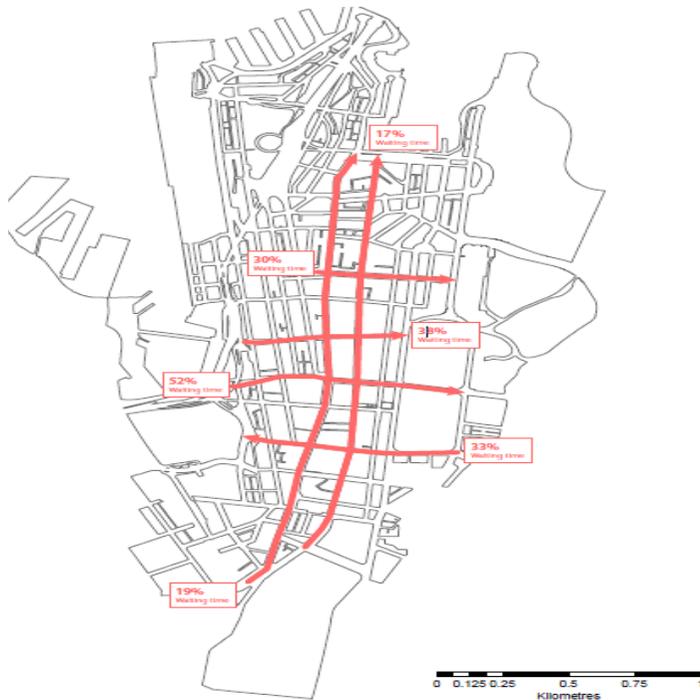
교통신호체계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길 찾기 지원 표지판·지도 확충



시드니 ‘보행 전략과 실행 계획’ 보고서

- 자문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떠오른 주요 제안사항은 크게 ① 보행을 더욱 빠르고 쉽게 만들기, ② 가로등 확충·교통안전·운전자 및 보행자 교육·자동차 등 다른 도로 사용자들과의 이해 충돌 해소 등을 포함하는 보행자 안전, ③ 유관 공공기관 간의 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됨. 이번에 발표된 최종 보고서는 이러한 논의와 제안들이 통합 반영하여 크게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보행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며, 쉽게 만들기 : 지난 50년 동안 시의 도로 설계는 자동차를 위해 설계되어 왔으며, 보행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 보행 표지판이 미흡하거나 보행 경로가 단절된 경우가 많음. 특히 교차로에서 보행자들의 신호 대기시간은 길고 횡단에 주어지는 시간은 짧아서, 전체 보행 시간의 50%가 대기시간으로 소요되는 경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교통신호 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고, 더 많은 보행 경로를 확보하며, 보행 시 소요시간을 단축함. 보행자들의 길 찾기를 지원하기 위한 표지판과 지도를 더욱 확충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체장애나 시각장애를 가진 보행자들이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



시드니 도심 주요 보행 경로의 보행 대기시간 비율

- 보행을 매력적이고 재미있게 만들기 : 보도를 시각적으로 더욱 재미있고, 보행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활기찬 보행(lively walking)’을 촉진함. 대중 예술과 길거리 이벤트를 활성화하며, 보도 주변 미관과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 전면 설계에 심미성 요인을 강화함. 또한 도시설계 규정(Street Design Code)을 준수하여 보행을 저해하는 주차 구역을 개선하고, 대규모 블록에는 샛길을 만들어 보행 경로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인간 척도(human scale) 및 인체공학에 기초한 보행 시설을 설계하는 등 보행 도시 환경(walkable built environment)을 구축함.
 - 보행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 보행자 안전은 보행을 위한 도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 우선 도심에서 차량의 속도를 낮춤과 동시에 공유도로를 확충하여 보도를 확장하고 차도를 감소시킴. 공유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공간을 별도의 공간을 할당함. 차도의 폭을 감소시켜 보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횡단 시에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높임. 보행자 개인 안전을 위해 범죄 예방 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원칙을 보도 설계에 통합시켜, 막다른 골목 제거, 감시 카메라 확충, 시야 사각 공간을 최소화하는 보도 설계를 촉진함.
 - 보행 문화 강화 : 그동안 보행은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보행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왔음. 보행이 단거리 여행 시 자동차에 앞서 첫 번째 교통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태도, 행동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사업을 추진함. 시민에게 보행의 경제·사회·환경적 혜택을 더 강하게 전달함. 아울러 녹색 관광 정책(Green Travel Plans)을 통해 직장 혹은 도심 재건축 건물에 샤워나 사물함 등 보행을 지원하는 시설(end-of-journey facilities)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이 전략 보고서는 2030년까지 상기 전략들을 달성하기 위한 10가지의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제시함. 아래 목표치들은 야심차지만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며, 최근의 보행 관련 동향 검토 및 예측에 기초하고 있음. 인구 고령화, 자녀가 있는 가족인구 증가, 시각장애인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자, 도심의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들도 함께 고려되어 있음. 수치화된 실행 목표들은 진행 상황 점검이 가능하게 함.

2030년까지의 실행 목표

목표	내용	현재	목표치 (2030년)
도심 거주자의 보행 출퇴근 비율을 전체의 1/3로 상승	도심 거주자의 29%는 보행으로 출퇴근하며, 대중교통(37%)과 자동차(30%)를 이용한 출퇴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29% (2011년)	33%
도심 거주자의 일반 도보 여행을 60%로 상승	쇼핑 · 교육 ·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을 위한 보행 이용을 높임.	평일 47%, 휴일 43%	60%
주요 보행 경로에서의 보행 대기시간을 10% 단축	주요 보행 경로를 파악해, 신호 대기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킴.	자료 수집 계획	현재 대비 10% 감축
주요 보도의 보행자 수용 능력을 20% 상승	도로 설계 및 개선은 시의 거리 설계규정(Street Design Code)을 따르며, 주요 보행 경로의 보행자 수용 능력을 높임.	-	현재 대비 20% 상승
보도 주변의 편의시설 10% 확충	보도 위 벤치 등 휴식시설과 가구를 확충함.	설문조사 계획	현재 대비 10% 상승
도심 거주자들의 상가 접근성 향상	학교 · 어린이집 · 편의점 등 일상생활 욕구를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800m)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함.	94%	100%
생활 네트워크(Liveable Green Network)에 접근	도심 거주자들은 도보로 3분 거리(250m) 이내에 교통 · 공원 · 문화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91%	100%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	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심 내 교통사고를 50% 감소시킴.	235건	현재 대비 50% 감소
야간 보행률 상승	야간 문화활동 등을 통해 야간에 도심 보행을 활성화시킴.	37%	현재 대비 50% 상승
보행 안전 체감도 상승	현재 주간 및 야간에 보행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보행자는 80%로, 보행 안전 체감도를 향상시킴.	80%	90%

- 시는 상기 보행 전략 및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내부 사업 관리팀(project control group)을 설립하고, 매년 사업 진행과정을 시에 보고하도록 함. 또한 매 5년마다 이 전략 보고서를 검토·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고 개선하기로 함.

<http://www.sydneymedia.com.au/sydney-on-front-foot-with-new-walking-strategy/>

<http://sydneyyoursay.com.au/walking-strategy>

도시계획·주택

문화재 건평 양도제 공공소유 문화재로 확대 시행

호주 시드니市 / 도시계획·주택

- 시드니市는 정부 소유의 문화재 건물을 민간에게 양도하여 도심의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시민의견 수렴을 거쳤음. ‘문화재 건평 양도 제도(Heritage Floor Space Scheme)’는 문화재 건물 소유주가 문화재 보존 혹은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고 시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시가 건물 소유주에게 건물 면적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에서 승인한 재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제도임.
- 이 제도는 건물 소유주에게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73년부터 시행되어 왔음. 건물 소유주에게 문화재 보존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시켜 건물 소유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고, 결과적으로 문화재 보존 및 유지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

문화재 보존하고 급증하는 도심 개발수요도 충족 ‘두 마리 토끼 잡기’



New incentives to save old buildings

Friday, April 17th, 2015

Like 2

Tweet 8+1

The City plans to make all government-owned heritage buildings eligible to be part of its highly successful Heritage Floor Space scheme. This will help government landowners to undertake or complete conservation works on Sydney's important public buildings.

- 그러나 이 제도는 민간 소유주에게만 양도 자격이 부여되었고, 공공소유 문화재의 경우 50년 이상 장기임대된 건물이나 건평에 한해서만 적용되어 왔음. 시는 이를 연방

정부, 주정부 혹은 시청이나 구청 등이 소유한 공공 소유 문화재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문화재 지정 건물의 양도는 ‘시드니 환경 계획 2012(Sydney Local Environment Plan 2012)’와 ‘시드니 개발 제한 규제 2012(Sydney Development Control Plan 2012)’ 등의 두 가지 규제 정책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시는 문화재 양도 확대 시행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임.
- 지난 42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문화재 건평 양도 제도’는 도심 개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개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시는 현재 개발 혹은 재개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공간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간 이 제도에서 제외되어 왔던 정부 소유 문화재의 개발 잠재력에 눈을 돌리게 됨.
- 이 정책이 민간 소유주들에게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되어, 현재 민간 소유 문화재의 대부분은 이미 보존 및 개보수 작업이 수행되어 문화재 건평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현재 단기간 내에 개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문화재 건평은 대부분 공공 소유 문화재로부터 창출될 수밖에 없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직면하여 공공 소유주들에게 차별적인 규제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시의 의견임.
 - 시는 2014년 한 해에 28억 호주 달러(약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개발 승인을 했으며, 이러한 개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민간과 공공 소유를 모두 합칠 시, 활용 가능한 문화재 건평은 최대 50만 ㎡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시는 이번 규제 개혁으로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추가확보가 가능한 건평이 7만 ㎡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음.
- 2015년 5월 12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문화재 건평 양도 제도에 관한 자격 요건 개정안’이 공개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

<http://www.sydneymedia.com.au/new-incentives-to-save-old-buildings/>

<http://sydneyyoursay.com.au/draft-dcp-award-heritage-floor-space-amendment>

내집 갖기·가족유대 강화에 도움주는 공공주택 정책 마련

싱가포르市 / 도시계획·주택

- 싱가포르 국가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는 시민들의 ‘자가 보유’와 ‘가족 관계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기존의 공공주택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2014년 11월부터 실행하고 있음. 수정된 정책의 핵심 목표는 ‘노후 생활 안정’, ‘부모-기혼 자녀 근거리 거주’,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확대’,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저소득 임차가구의 자가 보유 지원’ 등 5가지로 요약됨.

노후생활 안정·부모-기혼자녀 근거리 거주 등 5가지가 정책의 핵심목표

- 노후생활 안정 : 주택개발국(Housing and Development Board)은 저소득층 노인 가구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9년 임차를 조건으로 하는 분양 공공주택에서 마지막 일부기간에 임대계약을 환매하여 그만큼의 주택 가격을 해당 노인 가구가 현재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환매 제도(Lease Buyback Scheme)를 시행하고 있음.
 - 주택개발국은 2015년 4월부터 임대환매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상한선을 기존의 3,000싱가포르달러(약 246만 원)에서 1만 달러(약 819만 원)로 높이고, 주택 규모 또한 기존의 ‘방 3개 이하’에서 ‘방 4개 이하’로 확대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 가구의 자격을 대폭 완화하였음.
 - 환매 전까지의 임대기간도 기존에는 30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15년에서 35년까지 각 가구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은퇴 후 노인 가구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인 가구가 소유하던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작은 규모의 주택으로 옮긴 뒤 그 차익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방 2개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함.
- 부모-기혼자녀 근거리 거주 : 공공주택에 한해서 결혼한 자녀 세대가 노인 부모를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도록 자녀 가구와 부모 가구가 같은 주택, 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Married Child Priority Scheme)를 시행하고 있음.

- 기존에는 이러한 부모-기혼자녀 가구에 공공주택 분양추첨권을 하나 더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으나, 2014년 11월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30%를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부모-기혼자녀 가구에 분양하도록 하였고, 3대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하였음.
-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2015년 5월부터 공급되는 방 2개 규모의 공공주택 중 1인 가구에 공급되는 주택을 전체의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함.
 - 주거 취약 계층(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가구) 지원 :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대부분 부부 중심의 가구특성을 고려해 분양되는데, 기존에는 부부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공공주택을 다시 분양받기까지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음.
 - 주택개발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이혼 후 한쪽 배우자에게만 주택소유권을 인정하는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전(前)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주택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후에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살아야 할 경우 주택 분양에 우선권을 주기로 함.
 - 저소득 임차가구의 자가 보유 지원 : 월평균 소득이 5,000싱가포르달러(약 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임차가구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방 2개 또는 3개 크기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연금제도(Central Provident Fund)를 통해 가구당 최고 6만 싱가포르달러(약 4,9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방 2개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가구는 방 3개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가구당 최고 1만 5,000싱가포르달러(약 1,220만 원)를 지원하기로 함.

<http://app.mnd.gov.sg/Newsroom/NewsPage.aspx?ID=5989&category=Press%20Release&year=2015&RA1=&RA2=&RA3=>